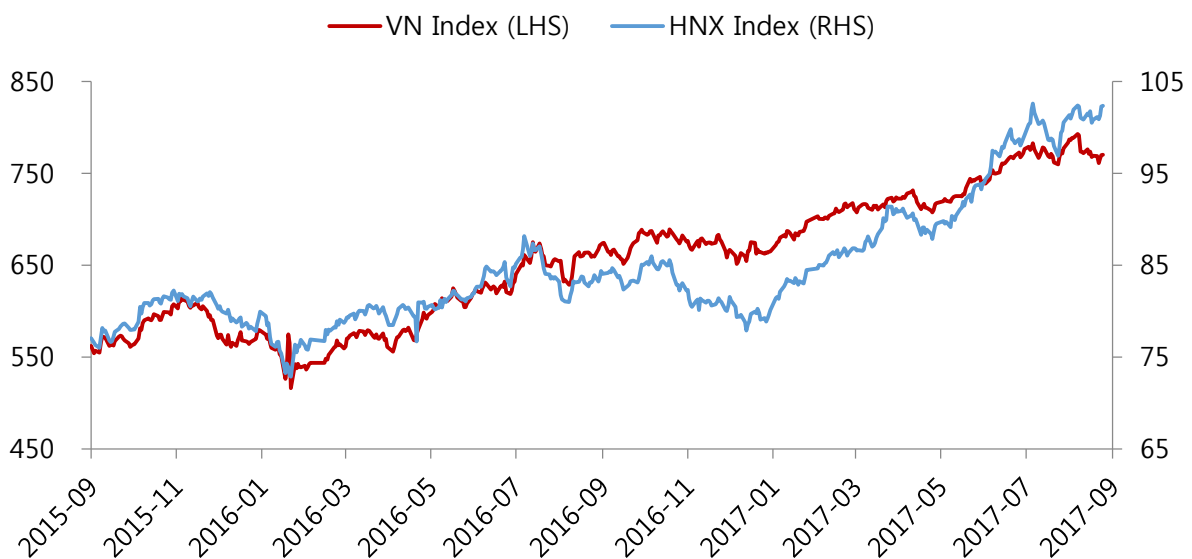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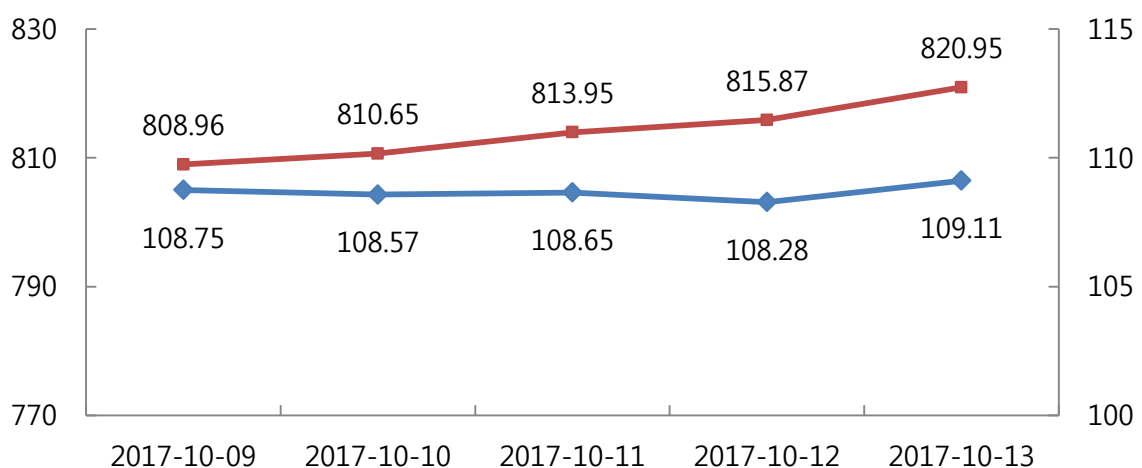


1. 주식시장 뉴스

■ 연간 주식시장 지수 (일별 종가 기준)



■ 주간 주식시장 지수 (일별 종가 기준)



■ 주중 주식시장 개관

이번주 주식시장은 호치민 VN 지수 820.95 포인트, 하노이 HN 지수 109.11 포인트로 마감하였다. VN 지수는 5 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였으며 10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외국인의 순매도에도 불구하고 3 분기 실적 기대로 개인들의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대형주가 소폭 상승했다. 은행, 부동산 업종의 상승이 두드러졌고 특히 1 위 부동산 업체 VIC 는 5% 이상 급등했다.

■ 개별 기업 뉴스

○ 비나밀크, 3분기 예상 수입액 5.91억 USD

베트남의 최대 유제품 생산 기업 비나밀크(Vinamilk)의 3분기 예상 수익은 13.3조 VND (5.91억 USD)로 예상된다. 이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8.4 퍼센트 증가한 것이다. 회사는 또한 세전 이익과 세후 이익이 각각 5.66퍼센트, 5.46퍼센트 상승하여 3.2조 VND와 2.69 조 VND를 달성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지난 3분기 동안 비나밀크의 수입은 38.75조 VND, 세후 이익은 8.54조 VND로 전년 대비 10.34 퍼센트와 13.6 퍼센트 증가하였다. 비나밀크 는 2017년 수익과 세전 이익을 각각 51조 VND와 9.73조 VND로 설정하였다. 올해 9개월 간의 성과는 2017년 목표의 76 퍼센트와 88퍼센트를 이미 달성하였다. 지난 10일 기준 비나밀크의 주가는 0.3퍼센트 하락한 주당 148,500 VND를 기록했다.

○ 페트로베트남, PVEP 석유블록 계약 체결

베트남 국영가스공사(페트로베트남)은 지난 9일 석유블록 01 & 02 운영을 위해 석유가스 시굴과 굴착총공사(PVEP, PetroVietnam Exploration Production Corporation)를 고용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베트남 연안 Cuu Long 유역 소재의 블록 01 & 02는, 말레이시아 기업 Petronas의 자회사인 PC 베트남 주식회사와 26년 생산물 분배 계약(PSC)이 만료된 후에 페트로베트남이 9월 9일에 인수했다. 인수 직후 PVEP는 두 석유 프로젝트의 운영한 역할을 위해 가장 유능하고 경험이 풍부한 인원으로 관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지난 한 달 동안 두 프로젝트는 안전하게 운영되었으며, 360,000 배럴의 원유 생산과 2,050만 USD 이상의 수입이 예상된다. 이처럼 긍정적인 결과는 페트로베트남이 블록 01 & 02의 공식적 관리를 위해 PVEP를 선정하도록 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페트로베트남은 PVEP가 향후 그룹의 석유 프로젝트 관리에 깊이 관여하여 고급 인력과 경험의 이익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주요 경제 동향

■ 목재상품 수출 80억 달러 임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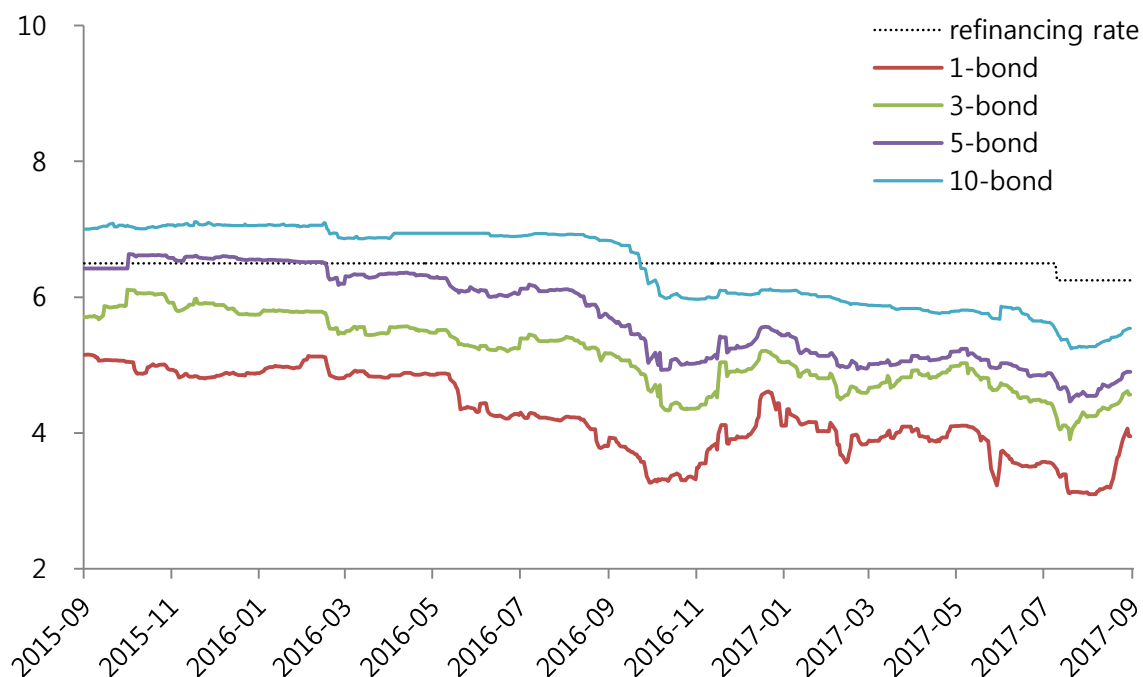
나무와 목재 상품의 수출액은 2017 년 80 억 USD 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대비 17 퍼센트 증가한 수치이며 올해 초 설정한 목표인 70-75 억 달러보다도 높다. 이 부문의 1 월부터 9 월까지 수출액은 59 억 USD 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1 퍼센트 증가하였다. 나무 수출액은 한 달에 7 억 USD 를 넘기도 했다. 베트남의 목재 상품은 파티클 보드(particle board), 널빤지, MDF 합판(Melamine-faced chipboard), 목재펠릿(wood pellet)에서 가장 높은 수출 성장을 기록했다. 보통 4 분기가 목재와 목재상품 수출의 성수기이므로 수출액 80 억 달러의 목표 달성은 가능해보인다. 목재 수출은 미국, 일본, EU, 중국 및 대한민국과 같은 주요 시장에서 대부분 성장을 보였다. 이 5 개 국가에 대한 수출액은 전체의 거의 90 퍼센트를 차지한다.

■ 소매업, 높은 직원 이직율

베트남의 유명 인적자원 관리 회사 내비고스(Navigos) 그룹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소매 부문은 직원 이직율이 높아 회사들의 장기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소매 업계 고용주의 28 퍼센트는 그들의 직원이 장기 계약을 하지 않았으며 49 퍼센트는 직원들이 자주 일자리를 바꾼다고 응답했다. 또한 직원들은 동종 업계의 경쟁사로부터 제안을 받을 경우 쉽게 이직한다. 응답자 중 60 퍼센트는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가 2-3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내비고스 그룹 산하 내비고스서치(Navigos Serach)의 상무이사 Nguyen Phuong Mai는 효과적인 사내 문화를 구축하고자 하는 회사는 비즈니스의 핵심 가치를 파악하고 거기에서부터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근로자가 장기 근무하지 않을 경우, 전사적 차원의 가치를 구축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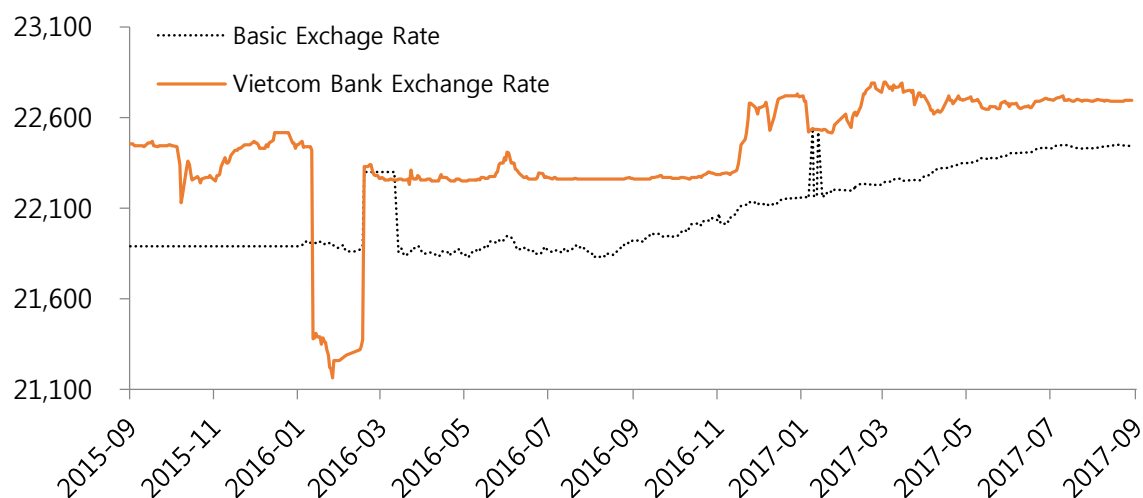
3. 금융 시장 동향

■ 기준 금리 및 국채 금리(SBV, Vietnam Government Bond Rate, %)



■ 환율(Vietcom Bank Exchange Rate, USD Sell Rate, VND/USD)

2017-10-13	Buying	Transfer	Selling
VCB Exchange Rate	22,680	22,680	22,750



■ 중앙은행, 카드 결제 장려 계획 발표

베트남 중앙은행은 POS(Point of Sales)와 mPOS(mobile Point of Sales)방식의 카드 단말기를 이용한 카드 결제를 장려하는 2017 년~2020 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총리가 2016 년 12 월 30 일 승인한 결정문 2545/QD-TT 에 따라, 베트남의 비현금 결제를 신장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계획의 골자는 2020 년 말을 기하여 총 결제 수단 중 현금의 비중을 10 퍼센트 이하로 낮추는 것이다. 카드 단말기를 이용한 카드 결제의 횟수와 금액을 점차 증가시키려는 방안으로, 2020 년을 기해 전체 시장에서 POS 시스템을 설치한 카드 단말기의 수 300,000 대 이상, 1 년 총 거래 횟수 2 억회 이상의 목표를 세웠다. 또한 2020 년 말 기준 은행 계좌를 보유한 15 살 이상 국민이 70 퍼센트가 넘도록 할 것이다.

4. 부동산 시장 동향

■ 친환경 건축의 유행을 예견

지난 5 일 호치민 시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한 전문가는 베트남의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다면 그린 빌딩의 유행이 있을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린 빌딩은 에너지 효율성이 높고 건축 자재가 인간의 건강 및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친환경 건물을 의미한다. 호치민 시 친환경 건축 협회의 Tran Khanh Trung 회장은 “베트남의 그린 빌딩 수는 현재 아시아 17 위, 세계 37 위에 불과하지만 그러한 건물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린빌딩은 2016 년 28 개에서 올해 48 개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베트남에서는 그린빌딩에 대한 개념이 대중들에게 비교적 새로운 것이며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조차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Trung 회장은 “환경 보호에 대한 지역 사회의 인식이 향상된다면 그린빌딩의 유행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5. 한국 기업 동향

■ KB 증권, 베트남 매리타임증권 인수 완료

KB 증권이 베트남 증권사 인수를 완료하며 베트남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낸다. KB 증권은 매리타임증권이 지난 9 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신규 이사진 구성을 의결하고 매리타임증권 지분 99.4%에 대한 주식양수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베트남 매리타임증권(Maritime Securities Incorporation) 인수와 관련해 현지 금융당국인 국영증권위원회(SSC)로부터 최종 인가를 받았다. KB 증권 전병조 사장은 “베트남 금융시장에 진출함과 동시에 성장 잠재력을 지닌 증권사를 인수하게 되어 기쁘다” 며 “KB 증권 본사의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여 매리타임증권을 베트남 선도 증권사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매리타임증권은 자산기준 업계 27 위, 자기자본 기준 업계 24 위, 주식 시장점유율(M/S) 기준 15 위권의 중소형사다. 베트남 하노이 본점을 포함해 호치민 등에 3 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More Information: <http://betanews.heraldcorp.com:8080/article/750994.html>)

본 뉴스레터의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restpine@gmail.com / rest@jplaws.com +84-96-280-6012

정성엽 syjeonghcmc@gmail.com / syjeong@jplaws.com +84-12-2889-7626

법무법인 제이피의 뉴스레터는 베트남 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저희 사무소의 법률 자문 또는 공식적 견해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본 뉴스레터의 수신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jplaw@jplaws.com 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